

“로컬푸드, 지역사회·경제 살리는 지름길”

‘행복의경제학 전주’ 첫날 아나 립백 로컬푸드처스 디렉터, 세계 농업·식량 현실과 해결책 제시

전주푸드 같은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지역 경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푸드 플랜은 전주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유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순환경제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먹거리전략이다.

아나 립백 로컬 푸처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21일 한국전문대학전당에서 열린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첫날 진행된 주제강연과 워크숍에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구조선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강연과 워크숍 ‘로컬푸드’ 세션의 발제자로 나

선 아나 립백은 각각 ‘로컬푸드: 체계적인 변화를 위한 솔루션 승수 효과’와 ‘로컬푸드-저항, 재생 및 실천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전 세계 농업과 식량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청중들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로컬푸드 운동의 현장으로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아나 립백은 “농업이 산업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유통과 운송 시스템 또한 중앙화되고 기업화됐다. 또 소수의 대기업이 전세계의 씨앗과 비료, 살충제 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 역시 10여개 정도의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며 “식품과 농업의 관점에서 농민들은 한편으로는 전 세계 다른 농민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식 농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품과 농업의 지역화는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소비자 와 농부, 환경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고,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또, 화학약품에 기반한 단종 재배에서 유기농 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독립 소매업체가 연계해 지역 사회를 재건하도록 돕는다. 지역기업은 소득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직접 또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로컬푸드를 구매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승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유통체인점과 비교해 농장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10배,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구매할 경우 3.5배의 경제 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로컬푸드 세션에서는 강성욱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이 ‘통합적 지역먹거리 정책’을 주제로 전주푸드 2025 플랜에 대해 소개했으며,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김현근 보좌관과 조경호(사)지역농업연구원장,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이번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첫날에는 이외에도 사이먼 리처드슨 호주 바이런 사이어 시장의 기조연설과 그랜돌린 홀스미스 미국 버몬트주 몬트펠리어시 공공개발 기획관의 주제강연, 사카타 유스케 일본 킨기대학 교수 등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미래와 지역기반 사회적응’ 세션의 워크숍도 진행됐다. /김민근 기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한다” 마이산 케이ابل 저지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항로 군수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전주 만든다’

보건소,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예방 캠페인 실시

전주시보건소가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치매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전주시치매상담센터는 21일 금안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감데이’ 행사에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치매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을 맞아 치매 예방법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 등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상담센터는 이 자리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등

을 소개하고, 치매 선별검사손을 마련하고 치매검사를 실시하는 등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또, 자체 제작한 치매예방 교육책자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전주시치매상담센터는 지난 14일 독거노인원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해 생활관리사 7명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전주천변에서 진행된 온고을 건강걷기대회에서 치매홍보관도 운영했다.

치매상담센터는 오는 27일에는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는 치매극복박람회에서 홍보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추석 교통종합대책 추진

교통시설물·주차장 일제 점검... 종합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을 추석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성묘객, 시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교통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청과 양 구청에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1일 8개반 13명 등 총 139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경기장과 동물원, 농성천,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추석당일에는 삼천2동, 서신동, 중화산2동 등 주민센터와 실내체육관 건산천 1·2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0곳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으며, 그밖에 유관 기관 70곳에 주차장 무료개방을 협조 요청했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도 교통흐름관찰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차량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교통 정체지역의 탄력적 신호 운영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효자공원묘지와 천주교 공원묘지에는 1,280여대의 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차량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터미널 등의 주변도로는 매일 2개반 4명의 근무조를 편성해 소용위주의 현장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8일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주요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과 교통신호시설 등을 점검 및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전주역과 고속·시의 버스터미널, 간이정류소 5곳 등 여객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합실과 화장실 등 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파손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명절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추석연휴 수돗물 공급 비상 대비 돌입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1일 10명 근무자 상주 종합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상수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24시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상황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열흘간의 추석연휴 동안 수돗물 공급 불편사항 발생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해 1일 10명 이상의 근무자가 상주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을 중심으로 비상급수반과 누수복구반, 수질관리반, 하수민원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되며, 각 반마다 다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물설 틀 없는 촘촘한 그물망 조직형태를 갖췄다. 상황실은 연휴기간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며, 상황 발생시 단계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과장급 공무원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조를 편성하는 등 전 직원이 24시간 맑은물 공급을 위해 민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와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비상근무사업장별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즉시 대응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시민은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연휴기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주요 상수도 시설물과 비상급수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을 사전에 방문해 연휴기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모처럼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반가운 손님과 가족에게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유수를 공급하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완산 서부과출소, 추석 전 취약지역 집중순찰 실시

완산경찰서 서부과출소는 최근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캠퍼스 폴리스와 함께 탄력운영순찰 및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갖고 관내 치안 취약지역에 집중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순찰은 여성범죄 및 강절도 범

죄가 추석을 맞아 증가할 우려가 있어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치안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또 순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밤거리 안전 확보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삼민 기자

완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 가저

완산경찰서는 2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강황수 서장, 각 과장,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완산서 주요 추진 업무 소개, 박정순 경발위원장 인사말, 강황수 경찰서장 인사말, 건의사

항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관내 주민들을 위해 완산경찰서와 경찰발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강황수 서장은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유산의 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